

장백산천지

제21호

2007년 2월 23일

금요일



토 | 막 | 소 | 식

▶ 2007년 2월 3일, 영국 런던에서 《법륜공박해 진상조사단》은 유럽분단의 설립을 선포했다. 현재 40여명 유럽 정부관원과 유명인사들이 이 분단에 가입했다.

▶ 2007년 2월 12일, 법륜공박해 진상연합조사단 미국-캐나다조사분단이 정식으로 설립 되었다.

▶ 중국 생체장기적출사건을 조사중인 캐나다 독립조사단의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오타와의회에서 《잔인한 생체장기적출—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강제적출에 관한 조사보고》의 개정판을 발표하고 원래 제시했던 18가지 증거를 33가지로 확충 했다고 발표했다.

▶ 2007년 1월 9일, 심양시 철서구 로관파출소 부근 거리랑쪽에 있는 가로수, 전신주, 담벽에 대량의 법륜공 진상스티커와 진상 표어가 붙었다.

▶ 2007년 신당인 전세계 중국인 새해 스펙타클러(공연) 워싱턴공연이 1월 26일, 27일 이틀간 조지 워싱턴대학 리스너 오디오리움에서 열렸다. 기세가 웅대한 네차례의 공연은 미국수도 관중들로부터 크나 큰 호평을 받았고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신비한 한자

한자는 세계 3대문자중의 하나이다. 그중 바빌론의 설형문자, 아랍의 상형문자 (성서체)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갔지만 유독 중화민족의 한자 만이 상조의 갑골문으로부터 오늘의 해서(楷書)로 변화발전 되어 3천년의 풍량 속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화와 내포를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상형, 회의, 지령등 방법으로 구성된 한자는 그 뜻이 가장 깊고 표달이 가장 정확하며 음조가 가장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다.

드센 녀인이 착한 녀인으로 변하다

저희 마을에 욱 잘하고 싸움 잘하는 추향이라 부르는 드센 여자가 살고 있다. 만약 누가 그를 좀 건드리면 영낙없이 혼쭐 나곤 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뒤에서 그녀를 송반다고 하여 그는 노기등등하여 이웃집에 뛰어들어 다짜고 짜로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물어뜯었다. 이웃이 피투성이 되어서야 그는 멈췄다.

2005년 가을, 법륜공을 수련하기 시작한 그는 지난날의 란폭한 성질을 고치고 《진-선-인》에 부합되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남편과 딸도 그와 함께 법륜공을 수련하고 있다. 지금 그의 집은 매우 화목하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추향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온 마을사람들은 의론이 분분했다. 《법륜공의 진선인은 정말 신기하다. 드센 추향이 착한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알고보니 텔레비존에서 법륜공을 모욕한 것은 죄다 날조다. 사람마다 법륜공을 수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나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룡아가 말 하게 되다

흑룡강성 모 수용소에 3명의 룡아가 갇혀 있었다. 한 대법제자가 종이에 《파룬따파 호우!》란 글자를 써서 그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손시능했다. 설매(28세)는 날마다 《파룬따파 호우!》라고 묵념했고 대법제자와 함께 련공했다. 10일후, 설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간단한 단어를 발음할 수 있었다. 어느날, 설매는 간수인을 보고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간수인은 깜짝 놀라서 《빨리 와보시오. 룡아가 말을 하오.》하고 소리쳤다. 간수인이 그에게 물 한사발 주었다. 설매는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그 대법제자가 수용소를 떠날 때 설매는 그를 끌어안고 《파룬따파 호우!》라고 련이어 외쳤다.

다른 두 룡아도 점차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들은 대법제자를 보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파룬따파를 배우겠어요.》라고 감격해서 말했다.

법륜대법은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장춘대법제자들



길림성 장춘시공안국에서 《겨울철아세아게임》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최근 1 주일간 적어도 50 여명의 대법제자들을 랍치했고 수백명의 대법제자들이 연금상태에서 인신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수천명이 감시를 받고 있다. 2007 년 1 월 중순부터 각 파출소,가두에서 명단을 만들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파급면적이 상당히 크다.

박해로 사망한 대법제자 왕수청

길림성룡정시 대법제자 왕수청(녀, 55 세)은 2001 년 진상을 알리다가 로투구파출소 악경들에게 붙잡혀 로동개조 1 년판결을 받았다. 로교소에 갇혀있는 기간 악인들은 입에다 음식물을 쑤서넣기, 벌세우기, 전기방망이로 지지기, 잠 못자게 하는 등등 갖은 수단을 다 썼지만 그의 대법에 대한 신념을 개변할 수 없었다. 만기되어 집에 돌아온 후 악인들은 또다시 그를 체포하여 세뇌반에 보냈다. 세뇌반에서 단식투쟁하는 왕수청을 어찌할 방도가 없자 악인들은 그를 룡정시간수소에 넣었다. 그는 간수소에서 계속 단식투쟁을 견지했다. 악인들은 그가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병원에 보냈다. 악경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정념으로 뛰쳐나온 왕수청은 떠돌이생활을 하게 되었다. 모진 고초속에서 중병이든 그는 2005 년 11 월 3 일에 한을 품은채 세상뒀다.



폭로

박해

연변박해소식

■ 연변개산톤 대법제자 오기문은 최근 로동교양 2 년불법판결을 받고 길림성 9 대 로교소에 압송되었다.

■ 최근 연변주법원에서는 상급의 압력하에 연변 대법제자 김덕수를 심판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정의로운 세인과 법륜공수련인들은 정념으로 법륜공을 박해하는 연변의 모든 사악을 폭로하고 무고한 대법제자 김덕수를 석방토록 합시다.

연변주공안국악인방



마효동 연변주공안국 국장 13904430965
최창기 연변주공안국 부국장 13304485111
윤립화 연변주공안국 부국장 13904481166
김시철 연변주공안국 부국장 13304488111
김광진 연변주공안국 부국장 13304437555
왕신재 연변주공안국 기률검사위원회 서기
리건국 연변주공안국 법제처 처장
13039089969
오경림 연변주공안국 610 두목, 국보대대 대대장
2970555

각성한 한 사천공안간부의 성명

존경하는 법륜대법사부님과 법륜대법제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천공안간부입니다. 1999 년이후, 저는 대법사부님과 법륜공수련제자들을 모독했고 질책했으며 박해했습니다. 대법제자들은 여러번 나를 찾아와 진상을 이야기하면서 불법(佛法)을 박해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저는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고함치며 위협했고 마음속으로 대법과 대법사부님, 대법제자를 미워했으며 꾸짖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저는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목숨을 헐값으로 팔아 먹었다는 것을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병원에서조차 확진할 수 없는 괴상한 병에 걸려 모진 고통 속에서 온종일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집식구들은 저때문에 고생했고 조급했습니다. 저는 법륜공전단지에 쓴《불법을 박해하면 악보를 받는다.》는 말이 불쑥 생각 났습니다. 과연 내가 악보를 받은 것이 아닌가? 예전에 여러분들의 권고를 듣지 않은 것이 후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 한 대법제자가 저의 병실에 찾아와서 마음속으로 《법륜대법이 좋다. 진선인이 좋다.》라고 묵념하면 자신을 구할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가명으로 《3 퇴》성명을 발표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묵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병은 확실히 뚜렷한 호전을 보였고 온몸이 거뻏했으며 정신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시각, 저는 대법사부님과 법륜대법, 대법제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죄하는 바입니다. 저는 실제행동으로 과실을 미봉하고 배로 상환하며 지난날 대법과 리선생님, 대법제자들을 존경하지 않은 그릇된 언행을 모두 폐기함을 성명합니다. 지금도 잘못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히 각성하여 다시는 강택민과 중공을 대신해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바치지 말것을 저는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사악한 공산당의 왕법만이 두렵고 사람을 선량하게 하는 불법(佛法)은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청성(淸醒) 합시다.

성명인:대사법(代謝法) 2007 년 1 월중순



《9평》
문답

다른 당을 바꿔도 악물만 바꾸고 악을 바꾸지 않는 격이 아닌가?

탈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한 후의 정의적인 행동으로서 선량한 인성의 한 부분이 열리는 것이다. 중공이 사람들에게 부여넣은 것은 《거짓, 사악, 폭행》으로서 사람들의 도덕성을 훼멸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과 리탈하는 것은 이미 인심이 선량함을 향하는 중대한 표현으로 전 사회가 리탈한다면 필연코 진정한 도덕의 승화와 사회기풍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때에 가면 누가 하든지 사회는 더욱 안정 될 것이다. 인심과 도덕은 아름다운 사회의 근본적인 보장이다.